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15. Vol. 26. No. 1. pp. 27~50.
ISSN 1225-6336(Print) / 2288-8799(Online)
http://dx.doi.org/10.14816/sky.2015.26.1.27

중학생이 지각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와 분노조절의 관계: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양미숙** · 하 정***

초 록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와 분노조절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53명(남:166, 여: 287)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 분노조절, 자기위로 능력을 측정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그리고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각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SPSS,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및 매개효과의 구조모형 분석 등은 AMO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상관분석에서 중학생이 지각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 분노조절, 그리고 자기위로능력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변수들의 상관관계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에 대한 모형검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탐색하고 최적의 모형에서 개별변수의 영향력과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모형검증 결과, 수용적 부모양육태도가 분노조절에 미치는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가 직접 분노조절능력을 증가시킨다기보다는 자기위로능력을 증가시켜서 분노조절능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수용적 부모양육태도, 자기위로능력, 분노조절

---

* 본 연구는 양미숙(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의 석사논문(2014년 8월, 지도교수: 하정)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임.

**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김제교육지원청 Wee센터
***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신저자, hajung68@hanmail.net

Ⅰ.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발달해가는 과정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성장 급등과 미성숙이 공존하는 시기이다. 초기청소년기에 속하는 중학생은 특히 변화와 갈등을 많이 겪는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과도한 입시 경쟁과 성취 요구로 인해 좌절 경험을 겪기 쉽고 이로 인한 분노, 무기력, 폭력 행동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기 쉽다(서경란, 2012). 이 가운데 특히 분노는 모든 사람이 표현하는 일상적인 감정이지만 사회적 규범에 의해 제한되며 분노의 부적절한 표현은 다양한 심리적 과정을 와해시키고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이미리, 2009). 따라서 청소년의 적응과 심리적 안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노감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ielberger, Jacobs, Russell and Crane(1983)은 분노란 주관적인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노를 경험한다하더라도 사람마다 분노에 대처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각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성격 특성에 따라 개인이 인지하는 위협에 대한 반응이 다르며 그 반응에 따라 분노를 얼마나 자주, 언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분노 경험을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로 구분하였으며 분노표현방식을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로 구분하였다. 분노 표현 양식 중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은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행동으로 분류되고, 분노 조절은 기능적인 분노표현 행동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분노 감정과 표현에 대한 다각적인 구분과 이해가 요청된다.

분노는 분노충동과 분노조절 반응을 포함한다. 분노는 분노충동이 유발될 때 그 충동을 표출하거나 또는 조절하는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Diamond & Aspinwall, 2003). 청소년기에 미해결된 분노는 성인기의 심리적 문제와 장애로 발전되기 때문에 적절한 분노 조절은 청소년기에 숙달할 중요한 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Brody, Yu, Beach, Windle & Philibert, 2014).

지금까지 분노에 관한 연구는 분노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김교헌, 전겸구, 1997), 분노 표현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김진영, 고영건, 2011; 김현주, 이정윤, 2011), 분노 표현 방식의 모형 검증(안지현, 이승연, 2013), 분노조절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김미희, 2010; 김종주, 2011; 문은주, 2010; 서경란, 2012; 안윤영, 2012)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분노에 관한 연구는 효율적으로 분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하려는 데에 집중되었다(홍경자, 채유경, 이명자, 2000). 따라서 청소년의 분노 감정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아온 변인은 분노조절이다. 많은 연구(김미희, 2010; 김종주, 2011; 문은주, 2010; 서경란, 2012; 안윤영, 2012)에서 청소년의 분노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에 반해 청소년의 분노조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고 이들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나 상호 영향력을 규명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청소년의 분노조절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아온 변인은 부모의 양육태도이다.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수용적 부모양육태도와 긍정적인 분노표현, 거부적 양육태도와 부정적인 분노표현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김가희, 2007; 박경옥, 2005; 오윤선, 2012; 정윤성, 2007; 홍경자 외, 2000; Brody et al., 2014; Jackson, Kuppens, Sheeber & Allen, 2011). 즉,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서 자녀의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무반응할 때 아동의 분노조절 능력이 떨어지고(임희수, 박성연, 2002), 어머니가 기쁨, 애정 등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좌절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 표현을 적게 하는(Garner & Power, 1996) 등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분노를 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분노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두 변인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분노 조절을 매개하는 심리적 변인을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이를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분노조절의 관계에서 두 변인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자기위로능력을 주목할 수 있다. 자기위로능력은 부모와의 관계의 질과 관련이 높은 변인으로 대상관계이론에서 도출된 개념이다(Sugarman & Jaffe, 1989). 최근 자기위로능력과 분노조절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권영, 2014; 박봉석, 2011). 자기위로능력이 분노조절을 잘 하거나 분노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분노조절과 관련해서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와 자기위로능력은 상호 상관이 높으면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경험적 연구에서 세 변인의 상호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와 분노조절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이 부분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대안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는 자기위로능력이 분노조절과 상관이 높은 심리적인 변인이고(권영, 2014;

박봉석, 2011) 자기위로능력이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와도 상관이 높은 변인이라는 점(김슬애, 하정, 2014; 김윤희, 2008; 정우희, 이지연, 2013)을 주목하였다. 더욱이 중학생 시기의 분노조절 반응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이미리, 2009)를 고려하면 이 시기의 청소년은 자신의 심리내적 변인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견되어 완전매개모형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수용적 부모양육태도와 분노조절의 관계에서 자기위로 능력의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분노조절 관련 변인들에 대한 구조적 관계와 영향을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분노조절 수준을 높이는 과정에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위로능력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 구체적인 개입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고 완전매개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 자기위로능력, 분노조절은 상관이 있을 것이다.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가 분노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위로능력이 부분 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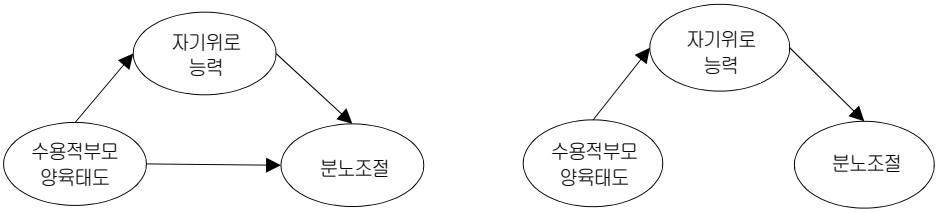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부분매개)와 대안모형(완전매개)

Ⅱ. 이론적 배경

1.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분노 조절

분노는 흔히 부정적인 정서로 분류되지만 적절한 분노는 인간이 느끼는 정상적인 정서반응의 하나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키거나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정윤성, 2007). Rothenberg(1971)는 분노를 의사소통방식으로 보았으며 분노는 공격성이나 파괴가 아니라 불안에 대한 대안이거나 방어로서 일종의 자기표현이며 변형된 의사소통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분노는 청소년의 우울 등 심리적 문제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울한 청소년은 우울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상황에 따른 분노표출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Jackson et al., 2011). 이상의 논의를 살펴볼 때, 분노감정 자체 보다는 분노조절이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분노와 관련한 경험적 연구 가운데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변인은 부모의 양육태도이다.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이숙, 1988).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공격성(황희정, 2013), 스트레스와 정서경험(김윤희, 2008), 자아존중감(김경수, 김화경, 2011)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힌 연구들이 있다.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분노 및 학교 폭력에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이 자녀의 심리적 환경 요인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김가희, 2007; 박경옥, 2005; 오윤선, 2012; 정윤성, 2007; 홍경자 외, 2000; Brody et al., 2014; Jackson et al., 2011). 이 가운데 분노 조절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수용적이라고 지각한 대학생 집단이 거부적이라고 지각한 집단에 비해 분노조절 점수가 의미있게 높았으며(정윤성, 2007) 부모가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고등학생의 분노조절을 의미있게 높혔다(오윤선, 2012). 자녀가 부모양육태도를 애정・수용적으로 지각할 때 분노조절의 경향이 높고, 거부적으로 지각할 때는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태영, 2009). 이상

과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분노감정에 대해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자기위로능력과 분노 조절

분노조절과 관련된 변인으로 자기위로능력을 주목할 수 있다. 자기위로능력은 불안이나 긴장과 같은 불유쾌한 정서를 일으키는 상황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내적 자원을 사용하여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능력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나 상태에서 감정적 심리적으로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스스로 감정을 달래는 방법과 타인의 위로를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한다(Glassman, 1989; Moser, 1991). 자기위로능력은 대상관계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유아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한 개인으로 심리적 탄생을 하고 어머니와의 분리-개별화 과정을 통해 자기와 타인을 구별하고 정체성을 구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상항상성을 획득한 유아는 불안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따뜻함과 안정감을 되살려 스스로 자기를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Sugarman & Jaffe, 1989).

자기위로능력과 분노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최근 시도되고 있으며 주로 자기위로능력과 분노 및 공격성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다(권영, 2014; 박봉석, 2011). 박봉석(2011)은 자기위로능력이 높을수록 분노조절이 높다는 정적 관계를 밝히고 있다. 권영(2014)은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분노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위로수준이 높을수록 집단따돌림이 영향을 미치는 분노행동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며 자기위로능력이 분노행동의 감소와 상관이 높은 변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위로능력이 분노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와 분노조절의 관계에서 이를 매개하는 심리내적 변인으로 자기위로능력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3.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위로능력

세 변인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위로능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공감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양육으로부터 자기위로능력이 생겨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

다(Glassman, 1989). 자기위로능력 개념이 대상관계이론에서 부모와의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부모와의 애착이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두 변인의 관계를 밝힌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으며 최근 소수 시도되고 있다(김슬애, 하정, 2014; 김윤희, 2008; 정우희, 이지연, 2013).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위로능력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는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요인 중 온정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김윤희, 2008). 이는 수용적 부모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자기위로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대상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위로능력이 높았으며(김슬애, 하정, 201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자기위로능력은 낮다는 것을 밝힌 연구가 있다(정우희, 이지연, 2013).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기위로능력은 부모의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와 건강한 애착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세 변인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분노조절 관련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중학생이 지각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와 분노조절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방 법

1.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는 호남지역 4개 중학교에서 표집된 총 453명이다. 2013년 9월과 10월에 연구자가 직접 중학교를 방문하여 담당 교사와 함께 설문을 실시하였다. 실시 전 참여 동의를 구하였고 실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중학생 510명에게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무응답과 불성실 응답 설문지 57부를 제외한 45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중 남학생이 166명, 여학생이 287명이었으며, 중1 학생이 157명, 중2 학생이 166명, 중3 학생이 130명이었다. 결과적으로 학년은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구성되었으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수가 참여하였다.

2. 측정도구

1) 수용적 부모양육태도

중학생이 지각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권순명(1993)이 구성한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Rohner(1981)에 의해 제작되었고, 김언주(1998)에 의해 번안 사용된 부모양육태도 척도(Parent Acceptance-Rejection Questionaire, PARQ) 60문항 중 우리 문화와 생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애정, 이해, 존중 등으로 표시되는 수용적 태도)-거부(무시, 학대, 무관심 등으로 표시되는 거부적 태도) 차원의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하위척도인 수용적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1점에서 4점까지 (1=전혀 아니다, 4=거의 항상 그렇다)의 4점 Likert척도로 되어있으며, 총 점수의 범위는 각각 최저 15점-최고 60점을 얻을 수 있다. 권순명(1993)의 연구에서 중학생(220명), 고등학생(220명), 대학생(220명)을 대상으로 측정된 Cronbach α계수는 부의 경우는 .87, 모의 경우는 .88이었으며, 94명의 학생에게 3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부의 경우 .91, 모의 경우 .93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계수는 부의 경우 .71, 모의 경우는 .72로 나타났다.

2) 자기위로능력

Glassman(1989)이 개발한 자기위로능력 척도는 45문항으로 4개의 하위요인은 신체적으로 위로하기(physical soothing), 회복력(resiliency), 자기노출(self-disclosure), 스스로 위로하기(self-soothing)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희정(1999)이 번안, 예비조사를 통해 29문항을 선정한 것을 고소희(2000)가 사용한 4개의 하위요인 중 스스로 위로하기(self-soothing) 11문항과 자기노출(self-disclosure) 7문항을 바탕으로 최명구(2003)가 사용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가지 하위변인을 2가지 하위변인으로 수정한 것으로 비슷한 문항을 통폐합하고 한국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고 무엇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고소희, 2000). 각 문항에 대하여 척도는 1점에서 5점까지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

다)의 5점 Likert척도로 점수를 평정하였다. 최명구(2003)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 신뢰도(Cronbach' α)를 보면 전체 척도는 .86이었고 스스로 위로하기 .84, 자기노출은 .8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Cronbach' α)는 전체 척도는 .69, 스스로 위로하기가 .73, 자기노출이 .65이었다. 내적 신뢰도(Cronbach' α)의 수용 수준은 학자마다 다르다. 보통 .70을 그 기준으로(Nunnally, 1978)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60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송지준, 2011).

3) 분노조절

Spielberger, Krasner and Solomon(1988)가 개발한 분노표현척도(Anger Express Inventory)에서 분노경험은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를 측정하는 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노표현방식은 분노억제, 분노조절, 분노표출을 측정하는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겸구(1996)가 번안한 척도 중 분노표현방식(분노억제, 분노조절, 분노표출)을 측정하는 24문항 중에서 분노조절을 측정하는 8문항을 사용하였다. 분노표현방식척도는 분노조절(분노에 대한 감정표현을 조절하는 심리)에 관한 8문항, 분노억제(분노의 감정을 자제하거나 억압하는 심리, 행동적 과정)에 관한 8문항, 분노표출(분노의 감정을 주어진 환경에서 타인이나 물건 등 어떤 대상에게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심리, 행동적 과정)에 관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는 1점에서 4점까지(1=전혀 아니다, 4=거의 항상 그렇다)의 4점 Likert로 되어 있으며, 총 점수의 범위는 8-32점이다.

전겸구(1996)의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된 검사의 Cronbach α계수는 분노조절 .88, 분노표출 .74, 분노억제 .75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계수는 분노조절이 .73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그리고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각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SPSS,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및 매개효과의 구조모형 분석 등은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

구의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비교하였다. 수용적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위로능력은 측정변수를 각각 두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하였고 분노조절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합한 문항들을 선정하여 문항꾸러미(item parcels)로 나누어 측정변수를 만든 이후에 측정변수들이 각 잠재변수를 잘 측정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는 표본크기에 대한 민감성, 모형의 간명성,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TLI, CFI 그리고 RMSEA 등을 고려하였다.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판정되고 .08이면 보통의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정된다. 이에 비하여 TLI, CF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0 또는 .95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모형비교를 위해서 내재된 모형의 경우에 사용하는 적합도 지수비교와 χ^2차이검증을 사용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배병렬, 2007). 본 연구의 자료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lihood Estimate: ML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매개 유의성에 대한 검증은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Ⅳ. 결 과

1. 예비분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예비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을 분석하였다. 표 1에 있는 결과를 살펴보면 3변인 중 2변인의 모든 관계 즉, 수용적 부모양육태도와 분노조절, 수용적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위로능력, 자기위로능력과 분노조절 각각의 관계에서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23~.35, p 〈 .01)이 나타났다.

표 1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M	SD
1	수용적 부모양육태도	1	.35**	.28**	2.73	.62
2	자기위로 능력		1	.23**	3.21	.50
3	분노 조절			1	2.83	.51

**$p < .01$

2. 측정모형 검증

수용적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위로능력은 측정변수를 각각 두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하였고 분노조절은 단일변인이므로 적합한 문항들을 선정하여 문항꾸러미(item parcels)로 나누어 측정변수를 만들었다. 표 2에서 1, 2는 수용적 부모양육태도의 수용적 부 양육태도와 수용적 모 양육태도 두 개의 측정변수이고 3, 4는 자기위로능력을 스스로 위로하기와 자기노출 두 개의 측정변수이며 5, 6은 분노조절을 두 개의 문항꾸러미로 묶은 것이다. 이러한 하위 요인과 문항 꾸러미들로 구성된 측정변수들의 상관,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수용적 부모양육태도, 자기위로능력, 분노조절의 각 하위 측정변수들은 다수의 경우 적절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0~.78, p 〈 .01).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변인들이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켜야 왜곡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Hong, Malik & Lee, 2003). 정상분포조건이 왜도 〈 3, 첨도 〈 8인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df=5, N=453)=15.735(p$ 〈 .01)이었으나 TLI=.980, CFI=.993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고 RMSEA=.069로 보통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어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제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수용적 부모양육태도는 .50-.58, 자기위로능력은 .38-.49, 분노조절의 측정변수들은 .53-.61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냈으며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 3개의 잠재변

수를 6의 측정변수로 측정하는 측정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3. 모형비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인 대안모형을 검증한 결과, 두 모형 모두 TLI와 CFI가 .90이상이고 RMSEA가 .050과 .057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판정되고 이에 비하여 TLI, CF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0

표 2
측정변수간의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5	6
1	1					
2	.78**	1				
3	.25**	.21**	1			
4	.39**	.35**	.12**	1		
5	.77**	.62**	.22**	.33**	1	
6	.26**	.21**	.22**	.10**	.42**	1
M	2.66	2.81	3.12	3.46	2.70	2.86
SD	.68	.63	.61	.67	.65	.53
왜도	.03	.16	.09	.51	.08	.54
첨도	.62	.43	.12	.62	.49	.99

1=부 수용적 양육태도, 2=모 수용적 양육태도, 3=스스로 위로하기, 4=자기노출, 5=분노조절1, 6=분노조절2

**$p < .01$

표 3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측 정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오차	임계치	표준화 경로계수
수용적 부모양육태도					
	부 양육태도	.34***	.03	13.1	.50
	모 양육태도	1.00	-	-	.58
자기위로능력					
	스스로위로하기	.50***	.02	5.32	.38
	자기노출	1.00	-	-	.49
분노조절					
	분노조절 1	.27***	.02	14.7	.53
	분노조절 2	1.00	-	-	.61

***p < .001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그러나 두 모형간의 적합도 지수들을 비교해보면 매우 근소한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χ^2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은 적합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chi^2(1)=2.565$). 반면, 완전매개모형이 보다 간명성을 띠기 때문에 대안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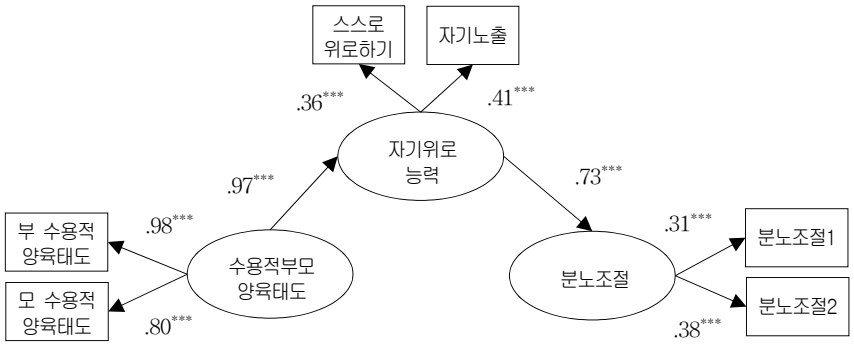
모형 간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χ^2	$\Delta\chi^2$	df	TLI	CFI	RMSEA
대안모형	14.825***	0.124	7	.984	.992	.050
연구모형	14.701***		6	.979	.992	.057

***p < .001

4. 모수추정

모형비교 결과 수용적 부모양육태도, 자기위로능력, 분노조절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대안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이 채택되었다. 이 완전매개모형의 모수추정치는 그림 2에 제시된 것과 같다.



***p < .001

그림 2. 대안모형(완전매개)의 모수추정치

표 5

매개모형 계수값

예언변인	준거변인	모형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C.R.	P
수용적 부모양육태도	자기 위로능력	대안모형	.30	.06	.97	5.34	***
		연구모형	.30	.06	.91	5.33	***
자기위로능력	분노조절	대안모형	.33	.06	.73	5.36	***
		연구모형	.95	.02	.22	4.28	***
수용적 부모양육태도	분노조절	대안모형	-	-	-	-	-
		연구모형	.72	.07	.51	4.72	***

***p < .001

표 5에 제시된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수용적 부모양육태도는 자기위로능력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β=.97, p<.001)을 미치며 자기위로능력은 분노 조절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β=.7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용적 부모양육태도와 분노조절 사이에서 자기위로능력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본 연구의 매개모형의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경로간의 계수를 비롯한 모수추정치를 확인하였으며, 모수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효과성의 분해에서 제시된 모든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이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에 대한 검토는 Sobel 검정방식[1)]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Sobel 검정에서 분자는 각각 매개효과의 추정치, 분모는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 s)를 나타내며 분모의 S_a와 S_b는 각각 추정치 a와 b에 대한 표준오차 값이다. Z_{ab}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

최종모형(대안모형)의 진로결정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예언변인	준거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수용적 부모양육태도	자기위로능력	.97***	-	.97***
자기위로능력	분노조절	.73***	-	.73***
수용적 부모양육태도	분노조절	-	.71***	.71***

***p < .001

1) Sobel test : $Zab = \frac{ab}{\sqrt{b^2 s_a + a^2 s_b^2}}$

분석결과, 매개모형의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수용적 부모 양육태도, 자기위로능력이 중학생의 분노조절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해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이는 수용적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기위로능력이라는 매개변인을 거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에서 p<.001수준에서 자기위로능력을 통한 매개모형의 Z 값이 3.70으로 유의함을 나타내었다.

V.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지각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가 분노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세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세 변인의 상관관계가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매개효과 검증에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가 분노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위로 능력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세 변인의 관계 모형 검증 결과, 중학생의 지각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위로능력을 매개로 분노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완전매개모형이 지지되어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지각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는 자기위로능력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자기위로능력이 분노조절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각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가 분노조절을 하게 하는데 대한 심리내적 변인을 발견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분노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임희수, 박성연, 2002; Garner & Power, 1996) 결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기위로능력이 분노조절을 증진한다고 하는 최근 연구(권영, 2014; 박봉석, 2011)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분노조절에 관한 기존 연구를 보면 분노조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김가희, 2007; 오윤선, 2012; 정윤성, 2007; Brody et al., 2014; Jackson et al., 2011)는 많지만 이들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나 상호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분노조절을 매개하는 구체적인 심리내적

변인으로 자기위로능력을 검증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매개모형 효과 검증 이전에 실시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세 변인들 모두 상호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높았다. 중학생이 수용적 부모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분노조절 수준이 높았다. 또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 소록 자기위로능력도 높았으며 자기위로능력이 높을수록 분노조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용적 부모양육태도를 지각할수록 자기위로능력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김윤희, 2008). 또한 분노조절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중요성을 밝힌 박봉석(2011)의 연구와 일치하며 권영(2014)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자기위로능력이 분노행동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각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와 분노조절의 상관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자기위로능력 변수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완전 매개 모형이 지지되었다. 이는 지각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가 직접적으로 분노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지각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위로능력에 영향을 미쳐서 자기위로능력이 분노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매개변인이 두 변수의 관계와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밝혀주었다. 이러한 발견은 나아가 부모양육태도와 분노조절과 관련된 많은 매개변수의 존재를 예견하게 해 주며 그 매개 변수들의 역할에 대해 주목할 것을 시사한다. 앞으로 이러한 매개변수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분노조절과 관련된 개인 심리내적 변인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상담개입에 많은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세 변인의 관계 모형 검증에서 중학생이 지각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가 분노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위로 능력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무엇보다 분노조절을 위해서는 자기위로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험적 근거와 더불어 고려할 점은, 청소년을 상담하거나 교육할 때 부모교육이나 부모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위로능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이후 연구에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 외에 자기위로능력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변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기존 아동과 청소년의 분노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지행동프로그램을 주된 접근 방식으로 채택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은청, 이혜진, 이진숙, 2012).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분노지연, 사고전환, 행동변화의 3단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분노지연을 위해서는 나 메시지, 이완기법과 호흡법, 지연작전, 타임아웃, 심상법, 사고중지, 상황 벗어나기, 자기감정 이해하기, 화를 내는 이유와 결과 이해 등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사고전환단계에서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기법, 인지왜곡 일지쓰기 등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행동변화를 위한 기법으로는 경청과 공감 기법, 역할극, 감정전달법, 요청과 거절, 대화법 등의 기법을 사용하였다(김미희, 2010; 김종주, 2011; 문은주, 2010; 서경란, 2012; 안윤영, 2012). 기존의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분조조절 프로그램이 인지적으로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려는 측면이 강하여 일시적,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분노표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으나, 내면의 억압된 분노 감정을 해결하고 친사회성을 회복하는 등 근본적인 내적 감정해소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전은청 외, 2012). 본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나 관계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을 수정하거나 부모가 수용적 양육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자기위로능력 자체를 키울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공감을 통한 자기이해와 자기 돌봄이 강화된 상담 개입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와 분노 조절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를 밝혔다.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분노와 관련된 변인 가운데 분노조절을 중심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위로능력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분노조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변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분노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위로능력을 향상시키는 상담 개입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발달 수준에 따라 분노감정의 경험과 표현 양상의 분화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중학교 청소년의 분노 표현 중에서도 분노조절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를 보면 공격성에 관련된 연구(오윤선, 2012; 한세리, 2007; 황희정, 2013) 또는 분노표현 전체를 다룬 연구(김가희, 2007; 김미희, 2010; 서경란, 2012; 정윤성, 2007; 홍경자 외, 2000)들이 있지만 분노조절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의 한계로서 연구대상의 성별(남=166, 여=287)과 지역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을 통해 얻은 결과로 우리나라 중학생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후속연구에서는 성별, 학년별 분석 등을 통한 모형검증을 통해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분노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수용적 부모양육태도를 살펴보았다. 부모양육태도는 여러 가지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도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부모양육태도 변인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연령별 차이 등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한다면 더 많은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변인에 대한 다양한 발달단계를 고려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변화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중학생의 분노조절과 관련하여 자기위로능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과 활성화가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고소희 (2000). **성인애착유형이 자기위로능력과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권순명 (1993). **지각된 양육경험과 통제귀인간의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권 영 (2014).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분노행동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가희 (200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및 청소년의 완벽의 성향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경수, 김화경 (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9**(2), 143-170.

김교헌, 전겸구 (1997). 분노, 적대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79-95.

김미희 (2010). **분노조절훈련 프로그램이 남·여 중학생의 분노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슬애, 하 정 (2014). 청소년의 대상관계수준과 공감능력간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지각된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503-526.

김언주 (1988). 인지-정의 인과론에 관한 귀인론적 접근. **교육발전 논총, 6**(1), 73-100.

김윤희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트레스와 정서경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자기위로능력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종주 (2011). **중학생의 분노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REBT활용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진영, 고영건 (2011). 청소년의 분노표현 양식과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이 학교분노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1), 63-79.

김진호, 홍세희, 추병대 (2007). 경영학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 문헌 연구와 비판.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36**(4), 897-923.

김현주, 이정윤 (2011). 청소년의 애착과 분노표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12**(3), 965-981.

문은주 (2010). **고등학생용 분노조절 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경옥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봉석 (2011). **부모의 성취압력이 고등학생들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위로 능력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태영 (2009).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분노에 미치는 상관관계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배병렬 (2007).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서경란 (2012). 분노조절훈련 프로그램이 남자 중학생의 분노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 문화포럼, 39,** 64-90.

송지준 (2011).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 AMOS 통계분석방법 개정**(2판). 파주: 21세기사.

안윤영 (2012). **중학생의 분노 사고와 분노 표현의 관계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안지현, 이승연 (2013).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61-84.

오윤선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분노 및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0**(3), 91-104.

이미리 (2009). 청소년기 분노정서 경험의 발달과 자아존중감, 부모, 친구, 학업, 여가 맥락의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1**(2), 127-143.

이 숙 (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임희수, 박성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전은청, 이혜진, 이진숙 (2012).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프로그램 경향분석. **아동과 권리, 16**(1), 73-95.

전겸구 (1996). 한국판 STAXI척도 개발 연구(II). **재활심리연구, 3**(1), 53-69.

전희정 (1999). **청소년의 자기위로능력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우희, 이지연 (2013). 아동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불안 및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1(3), 17-30.

정윤성 (200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수용-거부양육태도에 따른 대학생의 분노표현 방식의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15(1), 91-103.

최명구 (2003). **청소년의 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안녕감과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세리 (2007). **남녀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생의 공격성 및 학교폭력 경험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홍경자, 채유경, 이명자 (2000).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그들의 분노 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 161-181.

홍세희 (2000). 문항반응 이론과 요인분석을 이용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임상심리학회 워크샵 자료집.**

황희정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감능력 및 공격성의 관계: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Brody, G., Yu, T., Beach, S. R. H., Windle, M., & Philibert, R. A. (2014). Harsh parenting and adolescent health: A longitudinal analysis with genetic moderation. *Health Psychology, 33*(5), 401-409.

Diamond, L. M., & Aspinwall, L. G. (2003). Emotion regulation across the life span: An integrative perspective emphasizing self-regulation, positive affect, and dyadic processes. *Motivation and Emotion, 27*(2), 125-156.

Garner, P. W., & Power, T. G. (1996). Preschooler's emotional control in the disappoint paradigm and its relation to temperament, emotional knowledge, and family expressiveness. *Child Development, 67*, 1406-1419.

Glassman, E. J. (1989). *Development of a self-report measure of soothing receptivity.* Canada: York Univ.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 636-654.

Jackson, J., Kuppens, P., Sheeber, L. B., & Allen, N. B. (2011). Expression of anger in depressed adolescents: The role of the family environ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 463-474.

Moser, M. L. (1991). *Transitional object and their relationship to self-soothing mechanism in latency aged childre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Rothenberg, A. (1971). On anger. *American Journal of Psychitary, 128*, 454-460.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trait anger. In J. N. Buctcher, & C. D. Spielberg(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pp.161-190).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pp.89-108). New York: Springer Verlag.

Sugarman, A., & Jaffe, L. S. (1989). *A developmental line of transitional phenomena.* In M. G. Fromm, & B. L. Smith(Eds.),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Clinical applications of Winnicott's theory. Madison, WI: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Tia, M. P., & Deborah, J. L. (2012). Attachment security and child's empathy: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8*(1), 1-21.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anger-control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soothing ability

Yang, Misuk* · Ha, Jung**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soothing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levels of anger-control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chosen from 453 middle school students (M=166, F=287) in Korea and they were given questionnaires to measure their self-soothing ability,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levels of anger-control. One research model and one alternative model were used to test the suitability of the data and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variables such a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levels of anger-control, and self-soothing abil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 self-soothing ability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anger-control. With these results in mind,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possible future direc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the conclusion.

Key Words: self-soothing ability,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ger-control

투고일: 2014. 9. 9, 심사일: 2014. 12. 18, 심사완료일: 2014. 12. 23

* Gimje Office of Education, Wee Center
** Jeonju University